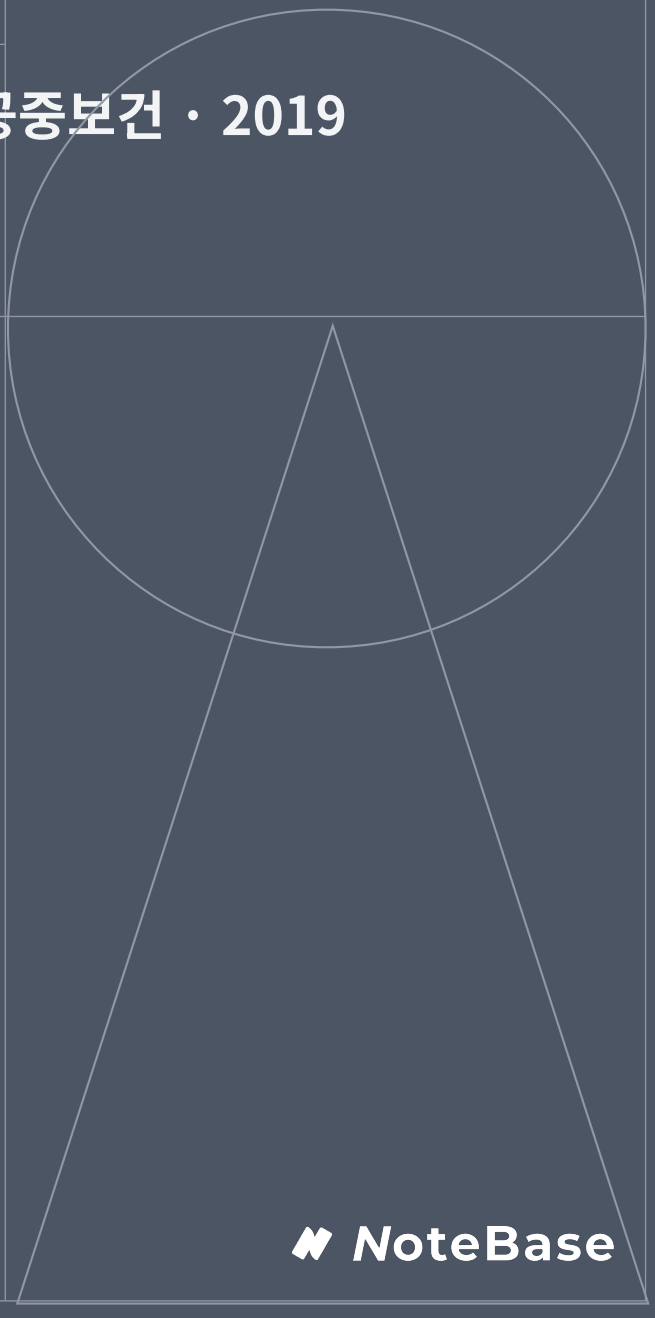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19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19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19

1. C. E. A. Winslow의 정의에 따른 공중 보건학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질병 예방
   ② 수명 연장
   ③ 지역사회의 조직화
   ④ 신체·정신 건강 및 효율의 증진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C. E. A. Winslow가 정의한 공중보건학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Winslow는 공중보건학을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정신적 건강과 효율을 증진하는 과학이자 기술로 보았다. 여기서 질병 예방·수명 연장·건강과 효율의 증진은 목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질병 예방은 Winslow가 제시한 공중보건학의 직접적인 목적이다.
② O — 수명 연장도 공중보건학이 달성하려는 목적에 해당한다.
③ X — '지역사회의 조직화'는 목적이 아니라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과 효율의 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올바르게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표현한다.
④ O — 신체·정신적 건강 및 효율의 증진은 공중보건학의 목적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Winslow의 정의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포함되므로 ③도 목적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의에 들어 있는 모든 표현이 목적은 아니며, '무엇을 달성하는가'와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Winslow의 정의에서는 질병 예방·수명 연장·건강과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수단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Winslow의 목적은 예방·연장·증진이고, 방법은 지역사회의 조직적 노력이다.

NoteBase

2. 병원체의 종류와 그에 따른 감염병을 짝지은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균성 감염병 – 광견병
② 세균성 감염병 – 탄저
③ 세균성 감염병 – 브루셀라증
④ 바이러스성 감염병 – 홍역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균성 감염병은 세균이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고, 바이러스성 감염병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이 문항에서는 탄저와 브루셀라증은 세균성, 광견병과 홍역은 바이러스성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틀린 표현은 '세균성 감염병'이며, 올바르게는 '바이러스성 감염병—광견병'이다.
② O — 탄저는 탄저균에 의해 발생하므로 세균성 감염병에 해당한다.
③ O —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에 의해 발생하므로 세균성 감염병에 해당한다.
④ O —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므로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광견병을 동물에게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이라는 특징만 보고 세균성으로 오인하기 쉽다. 전파 경로가 아니라 원인 병원체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병 이름마다 원인 병원체를 먼저 떠올린 뒤 분류한다. 탄저균·브루셀라균은 세균이고, 광견병 바이러스·홍역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이다.

암기 포인트

탄저·브루셀라증은 세균성, 광견병·홍역은 바이러스성이다.

NoteBase

3.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의 모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른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정체 인구가 되는 단계로 0~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 피라미드 모형은?

① 종형
② 항아리형
③ 피라미드형
④ 표주박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출생률과 사망률의 수준, 정체·증가·감소 여부,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을 이용해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가 정체된 유형이며, 0~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약 2배인 형태이다.
피라미드형은 출생률이 높고 유소년층이 두꺼워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이다.
항아리형은 출생률이 낮아 유소년층이 좁고 노년층의 비중이 커지는 인구 감소형이다.
표주박형은 생산연령층이 빠져나간 농촌 등에서 중간 연령층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종형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 인구가 정체되고, 0~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약 2배인 형태이므로 제시된 조건에 맞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항아리형'이다. 항아리형은 유소년층이 좁고 노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인구 감소형이며, 제시된 조건은 종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피라미드형'이다. 피라미드형은 높은 출생률로 유소년층이 두껍고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 인구가 정체된 형태는 종형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표주박형'이다. 표주박형은 생산연령층의 유출로 중간 연령층이 움푹 들어간 형태이며, 제시된 조건은 종형이다.

오답 포인트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말만 보고 항아리형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문제는 정체 인구이며 0~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라고 했으므로 종형이다. 항아리형은 유소년층의 비중이 더 작아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소년층이 두껍고 인구가 증가하면 피라미드형, 유소년층이 노년층의 약 2배이고 인구가 정체하면 종형, 유소년층이 좁고 인구가 감소하면 항아리형으로 판단한다. 생산연령층이 유출되어 중간 부분이 잘록하면 표주박형이다.

암기 포인트

증가형은 피라미드, 정체형은 종, 감소형은 항아리, 중간층 유출형은 표주박이다.

NoteBase

4. 학교보건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력 향상
② 난치병 학생의 질병 치료
③ 학습 능률의 향상
④ 건강한 환경 조성을 통한 심신의 안전 확보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학교보건의 목적이 학생의 건강 보호·증진과 교육 효과 향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하도록 보건교육, 질병 예방·건강관리,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 능력과 학습 능률을 높이고 심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일 자체는 의료기관의 기능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보건교육은 학생이 올바른 건강 지식과 태도를 익혀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는 능력을 높이므로 학교보건의 목적에 해당한다.
② X — '난치병 학생의 질병 치료'는 학교보건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학생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보건지도와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전문 치료로 연계하는 것이다.
③ O —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면 결석과 학습 방해 요인이 줄어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교보건의 목적에 해당한다.
④ O —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확보하므로 학교보건의 목적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아픈 학생을 돕는다는 점 때문에 학교보건의 목적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학교보건은 예방·조기 발견·보건지도·의료기관 연계를 담당하며, 난치병의 전문적 치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건강교육,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건강한 환경 조성, 학습 효과 향상에 관한 내용이면 학교보건의 목적에 해당한다. 전문적인 진단이나 질병 치료 자체를 학교가 수행한다고 하면 학교보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학교보건은 교육·예방·관리·환경 조성이며, 전문 치료 자체는 아니다.

NoteBase

5. 수원(source of wat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표수는 화학적으로 가장 순수한 물로, 탁도가 낮으며 경도는 높다.
② 복류수는 하천, 저수지, 호수 따위의 바닥이나 변두리 자갈, 모래층 속을 흐르는 물을 말하며, 수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③ 해수는 식염이 함유되어 있고, 역삼투막 여과작용을 이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지하수는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하며, 지표수와 달리 수온의 변화가 기온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원의 종류별 위치와 수질 특성, 음용수 이용 방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표수는 하천·호수·저수지처럼 지표에 있는 물로, 강수와 오염원의 영향을 받아 수질과 탁도 변화가 크다.
복류수는 하천·호수 등의 바닥이나 주변 자갈·모래층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로, 여과 효과를 받는다.
해수는 염류가 많은 물이며,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담수화 과정을 거치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수는 지층의 공극이나 틈에 존재하는 물로, 지표수보다 기온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수온이 비교적 일정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화학적으로 가장 순수한 물', '탁도가 낮으며 경도는 높다'이다. 지표수는 외부 오염과 부유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탁도와 수질의 변화가 크고, 일반적으로 지하수보다 경도가 낮은 편이다. 화학적으로 가장 순수한 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② X — 복류수의 위치에 관한 설명은 맞지만, '수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가 틀리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수원은 하천수·호소수 등의 지표수이며, 복류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O — 해수에는 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삼투막이나 여과·담수화 공정으로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수온의 변화가 기온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이다. 지하수는 지층의 완충 작용 때문에 지표수보다 기온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수온이 비교적 일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지표수와 지하수의 성질을 뒤섞었고, ②는 복류수의 정의가 맞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량까지 옳은 것처럼 꾸몄다. ④의 '많은 영향'도 지하수의 안정된 수온 특성과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수원을 '존재 위치-여과 여부-외부 기온과 오염의 영향-음용 처리' 순서로 판별한다. 지표수는 변동이 크고, 복류수는 모래·자갈층의 여과를 받으며, 지하수는 수온이 비교적 일정하고, 해수는 담수화 후 이용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지표수는 변동, 복류수는 자연여과, 지하수는 수온 안정, 해수는 담수화이다.

NoteBase

6. 지역사회 간호 과정의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정 – 계획 – 진단 – 수행 – 평가
② 사정 – 진단 – 계획 – 수행 – 평가
③ 진단 – 계획 – 사정 – 수행 – 평가
④ 진단 – 사정 – 계획 – 수행 – 평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지역사회 간호 과정의 다섯 단계와 각 단계의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사정 —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2. 진단 — 사정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3. 계획 — 진단된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와 수행 방법을 세우는 단계이다.
4. 수행 —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간호 활동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5. 평가 — 수행 결과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왜 이 순서인가: 사정에서 얻은 자료가 진단의 근거가 되고, 진단된 문제가 계획의 출발점이 되며, 계획이 있어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계획－진단'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문제를 먼저 진단해야 그에 맞는 목표와 방법을 계획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이다.

② O — 사정 자료로 문제를 진단하고, 진단에 따라 계획한 뒤 수행하고 평가하는 올바른 순서이다.

③ X — '진단－계획－사정'은 진단과 계획을 자료 수집·분석인 사정보다 앞세운 점이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이다.

④ X — '진단－사정'의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진단은 사정에서 수집·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올바르게는 '사정－진단－계획－수행－평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사정으로 시작하고 수행·평가로 끝나므로 그럴듯하지만, 진단 전에 계획을 배치한 것이 함정이다. 계획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진단으로 확정한 문제를 대상으로 세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절차형 문제에서는 '자료 확인 → 문제 규명 → 해결 방법 설계 → 실행 → 결과 확인'의 의존관계로 판단한다. 이를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 대응하면 '사정 → 진단 → 계획 → 수행 → 평가'가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사ㅡ진ㅡ계ㅡ수ㅡ평: 사정하고 진단한 뒤 계획하여 수행하고 평가한다.

NoteBase

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대기 환경 항목과 그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아황산가스(SO_2) –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② 일산화탄소(CO) – 1시간 평균치 30ppm 이하
③ 이산화질소(NO_2) – 1시간 평균치 0.5ppm 이하
④ 오존(O_3) – 1시간 평균치 0.5ppm 이하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대기 환경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대기오염물질별 1시간 평균치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대기 환경기준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한 대기오염물질별 농도 기준이다.

핵심 구분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1시간 평균치 기준은 아황산가스 SO_2가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가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_2가 0.10ppm 이하, 오존 O_3이 0.1ppm 이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아황산가스 SO_2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15ppm 이하이므로 옳다.

② X
일산화탄소 CO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30ppm 이하가 아니라 25ppm 이하이다.
틀린 표현: 1시간 평균치 30ppm 이하
올바른 표현: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③ X
이산화질소 NO_2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5ppm 이하가 아니라 0.10ppm 이하이다.
틀린 표현: 1시간 평균치 0.5ppm 이하
올바른 표현: 1시간 평균치 0.10ppm 이하

④ X
오존 O_3의 1시간 평균치 기준은 0.5ppm 이하가 아니라 0.1ppm 이하이다.
틀린 표현: 1시간 평균치 0.5ppm 이하
올바른 표현: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오답 포인트

②의 30ppm과 현행 기준인 25ppm을 혼동하거나, ③·④의 소수점 자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이산화질소와 오존의 1시간 기준은 각각 0.10ppm, 0.1ppm으로 수치상 같은 크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평균 시간이 1시간인지 확인한 뒤 물질별 기준을 대조한다. 1시간 평균치는 $SO_2 = 0.15ppm$, $CO = 25ppm$, $NO_2 = 0.10ppm$, $O_3 = 0.1ppm$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시간 대기 기준의 핵심 수치는 '아황산 0.15, 일산화탄소 25, 이산화질소 0.10, 오존 0.1'이다.

NoteBase

8. 민물고기 생식을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① 회충
② 요충
③ 간흡충
④ 무구조충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민물고기를 날로 먹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과 각 기생충의 주요 감염 경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간흡충은 피낭유충이 들어 있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이다.
감염 경로는 민물고기-간흡충, 소고기-무구조충, 충란이 묻은 손·음식물-회충·요충으로 구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충의 감염형 충란을 오염된 손이나 채소·음식물과 함께 삼킬 때 감염된다. 틀린 표현은 '민물고기 생식'이며, 올바르게는 '회충란의 경구 섭취'이다.

② X
요충의 감염형 충란이 묻은 손이나 물건 등을 거쳐 입으로 들어갈 때 감염된다. 틀린 표현은 '민물고기 생식'이며, 올바르게는 '요충란의 경구 섭취'이다.

③ O
간흡충은 피낭유충에 감염된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충분히 익히지 않고 먹을 때 감염된다.

④ X
무구조충은 유충이 들어 있는 소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된다. 틀린 표현은 '민물고기'이며, 올바르게는 '소고기 생식 또는 불충분한 가열 섭취'이다.

오답 포인트

'생식'이라는 말만 보고 육류 매개 기생충인 무구조충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민물고기'이며, 민물고기 생식과 연결되는 것은 간흡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먹은 음식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민물고기이면 간흡충, 소고기이면 무구조충을 연결하고, 회충과 요충은 감염형 충란의 경구 섭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민물고기-간흡충, 소고기-무구조충으로 짝지어 기억한다.

NoteBase

9.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역 감염병과 감시(또는 격리)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페스트 – 7일
② 콜레라 – 5일
③ 황열 – 10일
④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 12일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검역감염병별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질병별 최대 잠복기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감시 또는 격리 기간 = 검역감염병 의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 구분

「검역법」 제17조제3항과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르면 최대 잠복기간은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이다. 따라서 제시된 조합 중 콜레라와 5일을 연결한 ②만 옳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19

선지별 해설

① X
- 페스트의 기간은 6일이므로 7일이라는 수치가 틀렸다.
- 틀린 표현: 페스트 - 7일
- 올바른 표현: 페스트 - 6일

② O
- 콜레라의 기간은 5일이므로 질병과 기간이 옳게 짝지어져 있다.

③ X
- 황열의 기간은 6일이므로 10일이라는 수치가 틀렸다.
- 틀린 표현: 황열 - 10일
- 올바른 표현: 황열 - 6일

④ X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의 기간은 10일이므로 12일이라는 수치가 틀렸다.
- 틀린 표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 12일
- 올바른 표현: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오답 포인트

①의 7일, ③의 10일, ④의 12일처럼 실제 기간보다 조금 긴 수치를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특히 황열과 SARS의 기간을 모두 10일로 혼동하면 ③을 고르기 쉽지만, 황열은 6일이고 SARS가 10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콜레라 5일을 기준점으로 잡고, 페스트와 황열은 각각 6일, SARS는 10일로 대조한다. 선지의 수치가 이 네 값과 일치하는지를 질병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콜 5, 페·황 6, SARS 10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0. 용존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용존산소는 수온이 낮아지면 함께 감소한다.
② 물고기 서식을 위해서는 0.5pp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③ BOD가 높을수록 용존산소 수치도 높아진다.
④ 용존산소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클수록 깨끗한 수질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용존산소(DO)가 수온 및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수질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용존산소(DO)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으로, 수중 생물의 호흡과 수질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의 용해도가 커져 DO가 증가하고, 유기물 오염으로 BOD가 높아질수록 산소 소비가 늘어 DO는 감소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DO가 클수록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수온이 낮아지면 함께 감소한다'이다. 실제로는 수온이 낮아지면 산소의 용해도가 커지므로 용존산소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0.5*ppm* 이상'이다. 0.5*ppm*은 물고기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기에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약 5*ppm* 이상의 충분한 용존산소가 필요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BOD가 높을수록 용존산소 수치도 높아진다'이다. 실제로는 BOD가 높을수록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므로 용존산소는 낮아진다.
④ O — 용존산소가 많다는 것은 물속에서 소비되고 남은 산소가 충분하다는 뜻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값이 클수록 깨끗한 수질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①은 수온과 DO의 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제시하고, ③은 BOD와 DO의 관계를 같은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함정이다. 두 관계는 모두 반대 방향이며, ②는 5*ppm*과 0.5*ppm*의 소수점 위치를 바꾼 수치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온이 내려가면 DO는 올라가고, 유기물 오염과 BOD가 올라가면 산소 소비가 늘어 DO는 내려간다는 관계로 판단한다. 수질이 깨끗할수록 일반적으로 BOD는 낮고 DO는 높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찬물은 DO가 높고, 오염수는 BOD가 높으며 DO가 낮다. 깨끗한 물은 '저 BOD·고 DO'이다.

NoteBase

11. 금지된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경향을 강조해 스스로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을 제어하려는 방어기제는?

① 부정 ② 억제
③ 반동형성 ④ 억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을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어기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반동형성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구나 충동을 억누르고, 그와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강하게 나타내는 방어기제이다.
부정은 불쾌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억제는 불편한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적으로 미루거나 통제하는 것이며, 억압은 이를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선지별 해설

① 부정 X
부정은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현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이다. 이 문항처럼 충동과 반대되는 경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라 반동형성이다.

② 억제 X
억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적으로 보류하거나 통제하는 것이다.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억제가 아니라 반동형성이다.

③ 반동형성 O
금지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경향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반동형성의 정의에 해당한다.

④ 억압 X
억압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내어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충동과 정반대되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반동형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장에 '억제하기 위해'라는 표현이 있어 ② 억제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강조'한다는 부분이며, 이는 반동형성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래 충동과 정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유난히 강하게 보이면 반동형성으로 판단한다.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부정, 의식적으로 미루면 억제, 무의식으로 밀어내면 억압이다.

암기 포인트

반동형성은 속마음과 반대로 더 강하게 행동하는 방어기제이다.

NoteBase

12. 인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양적 조정정책은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우생학적 정책과 결부되어 있다.
② 질적 조정정책은 출생률을 조정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③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형태에 따라 질적 조정정책에서 양적 조정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④ UNDP는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로 지정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구정책의 양적 조정정책과 질적 조정정책을 구분하고, 세계 인구의 날에 관한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양적 조정정책은 출생·사망·이동 등에 영향을 주어 인구의 규모와 증감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이다. 출산 억제와 출산 장려는 모두 양적 조정정책에 해당한다.
질적 조정정책은 유전적·신체적·정신적 자질 등 인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이며, 전통적으로 우생학적 정책이 여기에 분류된다.
따라서 출생률 조절은 양적 정책, 우생학적 접근은 질적 정책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양적 조정정책'과 '우생학적 정책'을 결부한 부분이 틀렸다. 우생학적 정책은 인구의 질적 특성을 개선하려는 질적 조정정책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양적 조정정책은 출생률 등의 조절을 통해 인구 규모와 증감 속도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② X — '질적 조정정책은 출생률을 조정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출생률 조정과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의 수적 증감을 다루므로 양적 조정정책에 해당한다.
③ X —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변화를 '질적 조정정책에서 양적 조정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양적 조정정책의 방향이 출산 억제 중심에서 출산 장려 중심으로 바뀐다고 이해한다.
④ O — UNDP는 7월 11일을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양적·질적'이라는 분류를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특히 가족계획이라는 말만 보고 보건 수준 향상을 떠올리면 안 되며, 출생률을 조절한다는 직접적인 목적을 기준으로 양적 정책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을 정책 유형 자체의 전환으로 표현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정책 수단이 인구의 수와 증감에 영향을 주면 양적 조정정책, 인구의 자질과 질적 수준을 다루면 질적 조정정책으로 구분한다. 출산 억제와 출산 장려는 방향은 반대지만 모두 양적 조정정책이다.

암기 포인트

출생률·가족계획은 양적, 우생학적 접근은 질적, 세계 인구의 날은 7월 11일이다.

NoteBase

13. <보기>에서 식품의 보존 방법 중 물리적 보존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열법	ㄴ. 절임법	ㄷ. 훈연법
ㄹ. 밀봉법	ㅁ. 통조림법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식품 보존법을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리적 보존법은 열이나 밀폐 같은 물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가열법, 밀봉법, 통조림법이 이에 해당한다.
화학적 보존법은 소금이나 연기의 항균 성분 등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절임법과 훈연법이 이에 해당한다.
통조림법은 식품을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가열 살균하므로 물리적 보존법으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가열법은 물리적 보존법이지만, ㄴ 절임법과 ㄷ 훈연법은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는 보존법이다. 틀린 조합이며, 물리적 보존법만으로 고치면 ㄱ, ㄹ, ㅁ이다.
② O — ㄱ 가열법은 열로 미생물을 사멸시키고, ㄹ 밀봉법은 외부 오염을 차단하며, ㅁ 통조림법은 밀봉과 가열 살균을 이용하므로 모두 물리적 보존법이다.
③ X — ㄹ 밀봉법만 물리적 보존법이고, ㄴ 절임법과 ㄷ 훈연법은 화학적 보존법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ㄹ, ㅁ이다.
④ X — ㄹ 밀봉법과 ㅁ 통조림법은 물리적 보존법이지만, ㄷ 훈연법은 연기 성분의 화학적 작용을 이용한다. ㄷ을 ㄱ 가열법으로 바꾸면 ㄱ, ㄹ, ㅁ의 올바른 조합이 된다.

오답 포인트

훈연법은 건조 효과도 있어 물리적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 분류에서는 연기 속 항균 성분의 화학적 작용을 이용하는 보존법으로 본다. 또한 절임법은 소금이나 당에 의한 삼투 작용을 이용하므로 화학적 보존법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열을 가하거나 외부와 차단하는 방법은 물리적 보존법으로, 소금·당·연기 성분의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은 화학적 보존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물리적 보존은 가열·밀봉·통조림, 화학적 보존은 절임·훈연이다.

NoteBase

14. <보기>에서 설명하는 호흡기계 감염병은?

<보기>

-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 구진성 발진, 림프절염 등을 동반
- 감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예방 백신 접종 실시
- 임신 초기의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심장기형, 난청,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 발생 가능

① 성홍열 ② 백일해
③ 디프테리아 ④ 풍진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급성 바이러스성 발진, 림프절염, 예방접종 시기, 임신 초기 감염에 따른 선천성 기형을 종합하여 풍진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진성 감염병이다. 발진과 림프절 종창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태아에게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발생하여 심장기형, 난청, 소두증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태아 기형 위험이 풍진을 가려내는 가장 결정적인 단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대응은 '성홍열'이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세균성 발진 질환이다. 제시된 설명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질환은 풍진이다.
② X — 틀린 대응은 '백일해'이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한 세균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적인 기침이 핵심 특징이다. 제시된 설명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질환은 풍진이다.
③ X — 틀린 대응은 '디프테리아'이다.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의 독소에 의해 인두의 거짓막과 전신 독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세균성 감염병이다. 제시된 설명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질환은 풍진이다.
④ O — 풍진은 급성 바이러스성 발진 질환이고 림프절염을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임신 초기 감염 시 태아에게 심장기형, 난청, 소두증 등 선천성 풍진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기의 모든 핵심 단서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풍진과 홍역은 모두 바이러스성 발진 질환이고 예방접종 시기도 함께 떠올리기 쉬워 혼동할 수 있다. 이 문항에서는 '임신 초기 감염 → 태아의 심장기형·난청·소두증'이라는 표현이 풍진을 확정하는 단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진성 감염병에서 임신부 감염과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 함께 제시되면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먼저 연결한다. 여기에 림프절염과 예방접종 단서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풍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풍진은 발진·림프절염, 임신 초기 감염은 선천성 심장기형·난청·소두증으로 연결된다.

NoteBase

15. 보건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패널토의에 참여하는 발표자와 청중 모두가 주제에 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학자 또는 전문가여야 한다.
② 브레인스토밍이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심포지엄의 사회자는 전문가로서 발표자의 내용을 요약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어야 한다.
④ 강의는 어떤 내용을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직접 가르치며 설명하는 일방식 전달 방법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패널토의, 브레인스토밍, 심포지엄, 강의의 진행 방식과 참여자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널토의는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패널이 청중 앞에서 주제를 토의하는 방식이며, 청중 모두가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브레인스토밍은 비판을 유보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하여 창의적 해결안을 얻는 방식이다.
심포지엄은 여러 전문가가 한 주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차례로 발표하고 사회자가 진행과 요약을 맡는 방식이다.
강의는 교육자가 다수의 학습자에게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일방향 중심의 전달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은 '발표자와 청중 모두가 학자 또는 전문가여야 한다'는 표현이다. 패널로 참여하는 발표자는 주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어야 하지만, 청중까지 모두 학자나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② O —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에 대한 즉각적인 비판이나 평가를 유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하여 창의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③ O — 심포지엄에서는 여러 전문가의 발표를 연결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사회자가 진행을 맡는다.
④ O — 강의는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내용을 직접 가르치고 설명하는 일방향 중심의 전달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함정은 패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청중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패널토의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대상은 토의 발표자인 패널이며, 청중은 토의를 듣고 필요에 따라 질의할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방법마다 누가 말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확인한다. 전문가들이 서로 토의하면 패널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쏟아 내면 브레인스토밍, 전문가들이 차례로 발표하면 심포지엄, 교육자가 중심이 되어 설명하면 강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패널토의는 전문가 패널의 토의이지 전문가 청중만을 위한 토의가 아니다.

NoteBase

16.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특성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① 산화방지제 –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한 산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한다.
② 살균제 – 식품 등에 있는 미생물을 살균할 목적으로 L-아스코르브산(비타민 C)을 사용한다.
③ 조미료 – 당질 이외의 감미를 가진 화학적 합성품을 총칭하는 것으로써 영양가가 높다.
④ 보존료 – 부패세균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와 곰팡이의 발육을 억제시키는 방미제가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주된 기능 및 대표 물질이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산화방지제는 유지 등의 산화와 산패를 늦추는 첨가물이다. 살균제는 식품이나 기구 등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조미료는 식품에 감칠맛 등 특정한 맛을 더하지만 영양 보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보존료에는 부패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와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미제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산화방지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미생물을 제거하는 살균제로 사용되며, 산화방지제는 식품의 산화와 산패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② X — '살균제로 L-아스코르브산을 사용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L-아스코르브산은 산화를 억제하는 산화방지제로 쓰이며,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제가 아니다.
③ X — '조미료는 영양가가 높다'는 부분이 틀리다. 조미료는 단맛 이외의 감칠맛 등을 더하는 데 쓰이며, 영양가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④ O — 보존료에는 부패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부제와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는 방미제가 있으므로 종류와 특성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첨가물의 이름보다 기능을 바꾸어 연결한 함정이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 L-아스코르브산은 산화 억제라는 기능을 구분해야 한다. ③은 맛을 더하는 기능을 영양 보충 기능으로 바꾼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첨가물의 명칭을 보면 먼저 작용 대상을 연결한다. 산화방지제는 산소에 의한 변질, 살균제는 미생물, 조미료는 맛, 보존료는 세균과 곰팡이의 증식 억제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살균, L-아스코르브산은 산화 방지, 조미료는 맛, 보존료는 세균·곰팡이 억제이다.

NoteBase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요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 발생으로 나타난 증상일 것

④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유해·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의 요건과 업무상 부상에 뒤따른 질병의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업무상 질병은 업무수행 과정의 유해·위험요인이나 업무상 부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어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질병이다.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바탕이 된 질환을 뜻한다.

핵심 구분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요인에 노출된 경력, 해당 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시간·종사기간·업무환경, 그리고 노출·취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제2항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질병이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닐 것을 요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제1항의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

② O — 업무상 부상에 뒤따른 질병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X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업무상 부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 요건과 반대이다.
틀린 표현: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일 것
올바른 표현: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④ O —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이를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증상일 것'과 법문의 '증상이 아닐 것'을 뒤바꾸기 쉽다.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발현은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므로 인정 요건이 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해·위험요인형은 노출·취급 경력, 질병 유발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업무상 부상 후 질병형은 부상과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와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 증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의학적 연결이 필요하고, 기존 질병의 단순한 자연발생은 제외된다.

NoteBase

18.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모두 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
② 국민연금보험
③ 국민건강보험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보험을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는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득보장은 실업·노령·장애·업무상 재해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끊겼을 때 현금급여 등으로 생활을 보전하는 기능이다. 의료보장은 질병이나 부상의 진찰·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비용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등을 함께 제공하므로 두 기능을 모두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용보험은 실업 시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지만, 재해나 질병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보장제도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 모두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로 실업 등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한다'이다.
② X — 국민연금보험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으로 보전하는 소득보장제도이며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의료보장도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한다'이다.
③ X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료보장제도이다. 소득 상실 자체를 연금이나 휴업급여로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소득보장도 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주로 의료보장 기능을 한다'이다.
④ O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로 치료를 보장하고,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으로 근로자 또는 유족의 소득 상실도 보전하므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모두 수행한다.

오답 포인트

'보험급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보장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 국민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현금급여는 소득보장에 초점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의료보장에 초점이 있다. 두 기능이 결합된 것은 업무상 재해의 치료와 그로 인한 소득 상실을 함께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보험이 '치료를 보장하는가'와 '일하지 못해 생긴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가'를 따로 확인한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함께 제시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용·연금은 소득, 건강은 의료, 산재는 치료와 소득을 함께 보장한다.

NoteBase

19. 「모자보건법」상 대상자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신생아란 출생 후 30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②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③ 모성이란 임산부와 산욕기 여성을 말한다.
④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상 임산부·모성·영유아·신생아의 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각 대상의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고,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다.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이며, 신생아는 그중 출생 후 28일 이내인 영유아이다.

핵심 구분

「모자보건법」 제2조는 임산부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신생아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로 정의한다. '이내'와 '미만'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신생아의 기간은 출생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28일 이내이다.
틀린 표현: 출생 후 30일 이내
올바른 표현: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② X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이하인 사람이 아니라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이다. 따라서 만 6세가 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출생 후 6년 이하
올바른 표현: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③ X
모성은 임산부와 산욕기 여성이 아니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또한 임산부의 정의에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포함된다.
틀린 표현: 임산부와 산욕기 여성
올바른 표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④ O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므로 법정 정의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30일'과 법정 기준인 '28일', ②의 '6년 이하'와 '6년 미만'을 혼동하기 쉽다. ③은 모성의 구성 범위를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 아닌 '임산부와 산욕기 여성'으로 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간 숫자와 경계 표현을 함께 확인한다. 신생아는 28일 이내, 영유아는 6년 미만, 임산부는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이며,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신생아 28일 이내, 영유아 6년 미만, 임산부 분만 후 6개월 미만, 모성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다.

NoteBase

20.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 중 보존 기간이 가장 긴 것은?

① 수술기록
② 검사소견기록
③ 처방전
④ 진단서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보존기간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0년·5년·3년·2년 보존 대상을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진료기록부 등 = 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이다.

핵심 구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수술기록과 진료기록부는 10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 처방전은 2년간 보존한다. 따라서 보기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것은 수술기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술기록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된 기록 중 가장 길다.
② X — 검사소견기록은 5년간 보존하므로 수술기록의 10년보다 짧다. 틀린 표현: 보존기간이 가장 긴 기록은 검사소견기록이다. 올바른 표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③ X —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제시된 기록 중 가장 짧다. 틀린 표현: 보존기간이 가장 긴 기록은 처방전이다. 올바른 표현: 처방전의 보존기간은 2년이다.
④ X — 진단서 등의 부본은 3년간 보존하므로 수술기록보다 짧다. 틀린 표현: 보존기간이 가장 긴 기록은 진단서이다. 올바른 표현: 진단서 등의 부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오답 포인트

검사 결과나 진단서가 중요해 보여 장기 보존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①의 수술기록 10년과 ②의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록의 명칭을 먼저 확인한 뒤 10년 대상인 진료기록부·수술기록인지, 5년 대상인 검사·방사선·간호 기록인지, 3년 대상인 진단서 등의 부본인지, 2년 대상인 처방전인지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수술·진료 10년, 검사 5년, 진단서 부본 3년, 처방전 2년이다.

NoteBase